•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생활과 윤리]

1	④	2	⑤	3	②	4	④	5	①
6	④	7	③	8	③	9	⑤	10	①
11	②	12	⑤	13	②	14	②	15	③
16	①	17	③	18	⑤	19	①	20	②

1. [출제의도] 기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입장 비교하기

(가)는 기술 윤리학의 입장, (나)는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기술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 현상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記述)하는 것이다. 실천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출제의도] 유교 사상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유교 사상가인 공자의 주장이다. 공자는 군자가 이익[利]보다는 의로움[義]을 중시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공자는 지갑을 주운 뒤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하는 <문제 상황> 속 A에게 주운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이 의로운 행동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조언할 것이다.

3. [출제의도] 다문화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제시문의 '나'는 국수 대접 이론의 입장, '어떤 사람'은 동화주의 입장이다. 국수 대접 이론의 입장에서는 한 사회 내에 중심이 되는 주류 문화가 존재함을 인정하되, 각 문화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해야 한다고 본다. 동화주의 입장에서는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포기하고 자신이 이주한 사회의 주류 문화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출제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을 지키며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고,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기업의 이윤 증대뿐만 아니라 공익 증진 활동까지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가)와 (나)는 모두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5. [출제의도] 국가의 권위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개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전쟁 상태로 보았다. 로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수립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통치자가 사회 계약의 목적을 위반하면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홉스와 로크는 모두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한다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이해하기

제시문은 벤담의 주장이다. 벤담은 모든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라고 보았다. 또한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총합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7. [출제의도] 유전자 치료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될 수 있지만,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임상적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반면 을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뿐 아니라 후세대에게 병이 유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8. [출제의도] 형벌에 대한 베카리아와 칸트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사회 계약을 통해 만든 법에 근거를 둔다고 보았으며,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보복법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질과 양은 그가 저지른 범죄와 동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칸트는 정언 명령을 준수하여 살인범을 예외 없이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베카리아와 칸트는 모두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과학 기술자의 책임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과학 기술자가 연구 과정에서의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과학 기술자가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하지만,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까지 과학 기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0. [출제의도] 자연에 대한 싱어와 테일러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싱어, 을은 테일러이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를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테일러는 모든 유기체가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며, 인간은 이러한 존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사랑에 대한 프롬의 입장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프롬이다. 프롬은 사랑이란 이론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며,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프롬은 사랑이 보호, 책임, 존중, 지식(이해)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예술에 대한 플라톤과 와일드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플라톤, 을은 와일드이다. 플라톤은 예술이 인간의 올바른 품성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와일드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였으며 예술의 목적이 미적 가치의 구현에 있고, 예술이 도덕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태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생명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인공 임신 중절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을은 태아가 임신한 여성의 신체 일부에 불과하므로, 여성이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 인공 임신 중절은 정당하다고 본다.

14. [출제의도]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 이해하기

봉사 활동 계획서에서는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을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소비만을 지향한다면, 기업이 원가 절감을 위해 환경 및 인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봉사 활동 계획서에서는 학생들이 친환경 상품이나 공정 무역 상품을 구매하는 등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분배 정의에 대한 롤스와 노직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기본적 자유들이 다른 기본적 자유들과 상충할 때에만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어야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노직은 롤스가 주장한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최소 국가는 강압,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롤스와 노직은 모두 분배의 공정성은 분배의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정보 윤리 이해하기

칼럼에서는 가상 공간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가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 있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타인의 사생활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가상 공간에서도 존중, 해악 금지, 책임과 같은 정보 윤리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부정의한 일부 법이나 정책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며, 비록 위법이지만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다수결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죽음에 대한 장자와 플라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장자, 을은 플라톤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은 죽음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장자와 플라톤은 모두 이상적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이해하기

(가)는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담론의 참여자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주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20. [출제의도] 직업에 대한 순자와 맹자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예(禮)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분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는 직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恒産]이 백성의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통치자가 백성의 생업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순자와 맹자는 모두 육체노동에 능통한 사람은 누구나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